

조선비즈 기사 중, 방통위가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 중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보도내용

- 조선비즈는 2월 1일 「정부, 포털뉴스 ‘제평위 법정기구화’ 입법 중단」 제하의 기사를 통해
 - “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”는 내용을 보도

□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, 포털뉴스의 신뢰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
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총괄과	책임자	과장	천지현 (02-2110-1510)
		담당자	사무관	성재식 (02-2110-1511)